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기도서 450면 (B해)

제1독서 : 창세 2, 18-24

제2독서 : 히브 2, 9-11

복 음 : 마르 10, 2-12

# 숲 정 이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  
안된다” (마르코 10, 9)

## 강론

## 소리

### 민족의 보루인 국군

### 「TV로부터의 해방……」

김 의철 신부 / 군종

우리 거레의 터전인 한반도는 열강국에 에워싸인 완충국으로서 전략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기에 세계의 강대국-미국, 소련, 중국, 일본-들은 한반도 정세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7개 평화단을 제시하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기구를 창설하려고 한다. 중국은 우리의 기업 진출을 받아들이고 간접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미국 NBC-TV는 노대통령과의 회견을 통해 남북관계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이기 보다는 세계 열강들의 이목을 끄는 나라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체제로 인해 남북으로 대치하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실정이다. 철조망에 가로막힌 남북 분단의 상황은 생각할수록 우리의 가슴을 메어지게 한다. 평화통일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그 길은 멀고도 험난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있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은 남북통일보다, 먼저 자국의 이권과 패권을 쥐려고 한다. 노대통령이 제시한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 김 일성이 수락 의사를 밝혔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엿보게 하지만 위장평화 공세를 펴고 화해 무드를 표방하면서도 땅굴을 파내려 왔던 그들의 태도를 잊어서는 안되며 군사력도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긴장 완화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분단의 비극과 국제정세의 조류 속에서도, 우리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족 생존권의 보루인 국군이 변방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민족의 자존을 지켜주는 국군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군대는 국민이 육성해야 한다. 일부 눈먼 정치군인들이 테러를 사주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살과 뼈를 깎아내는 희생과 고통을 무릅쓰면서 우국충정으로 청춘을 바치고 있다. 군인은 우리의 형제요, 아들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군인 주일을 맞아 막중한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군을 위해 기도하자.

이번 '88 서울 올림픽 경기중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남자 100m 경주에서의 칼 루이스(미국) 선수와 벤 존슨(캐나다) 선수와의 대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은 오만 불손한 모습의 칼 루이스 선수보다는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는 듯한 벤 존슨이 이기기를 바랬고 또 사실 그렇게 되자 우리 국민은 자기 선수가 우승이나 한 것처럼 좋아했다. 9초 79의 경이로운 기록에 온 인류가 감탄과 축하의 박수를 보낸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선수가 '약물 복용'이라니…….

허탈과 함께 어떤 분노가 끓어 오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련하고 불쌍한 생각이 든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였으면 그런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운동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나 취미 생활의 일부일 때 가장 운동다운 것이다. 이를 벗어난 직업 운동꾼의 운동은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일 뿐, 더 이상 운동이 아니다. 어떤 기록에 대한 도전이나,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서의 운동은 운동의 그 신선함을 흐리게한다. 더구나 약물까지 복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운동 선수는 그 자체로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제외 되어야 한다.

우린 요즘 너무도 쓸데없는 일에 흥분하고 있는 듯 하다. 이미 정도(正道)에서 벗어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날뛰는 운동꾼들의 처절한 몸놀림에 넋을 잃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의 금메달이 우리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시간의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심심풀이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닌 일에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하느님께 용서를 청한다. 그 유명한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건'은 나로 하여금 TV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이다. 참으로 할가분하기가 가을 하늘 같다.



전교의 달을 맞으며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신다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선교에 관한 교령2), 이 선교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과 집단에, 교회를 부식(扶植)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업을 의미한다. (면헌장6)라고 교회는 가르친다. 이에 전교의 달을 맞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사회에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부식(扶植)시킬 수 있는가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2000년이란 세월 동안 어쩔 수없이 서구 문화와 풍습으로 꾸며진 서구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한국땅에 옮겨 놓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種)로 하여 토착화(土着化)된 부분(部分) 교회로, 독특한 생명력을 안고 성숙해야(同6) 한다. 뾰족한 첨탑에 우람한 건물, 장엄한 예식의 미사가 거행되는 성전이 늘어남을 선교의 성공이라고 만족해서는 안된다. 나자렛사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거처

하기에는 너무도 거북스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크고 웅장한 건물이나 어떤 운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하여 몰려다니는 군중 집회가 아니었다. 그 분께서 이루고자 하신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구원된 사람들의 공동체 건설이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 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사도 2, 42),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47) 공동체-아무도 돈이 없다가하여 따돌림 당하지 아니하고, 힘이 없다 하여 무시 당하지 아니하며, 못났다고 업신여김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다.

만약 오늘 이시간 주께서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신다면 우리는 그 분을 어떻게 영접 할까? 혹시 우리 공동체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으로 외면해 버리지는 않을런지...



성서와 함께

21. 성서시대의 역사(C) : 사막시절

에집트를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시나이사막에 진을 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여년동안 방황하였다. 이 기간중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강력한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른다. 이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법을 하사 받았다는 것이다.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십계명은 시나이 산에서 주어졌다. 이 산을 호렙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산" 또는 그저 "산"이라고도 불렀다. 그런데 이 산의 위치가 맹랑하다.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해발 2,500m의 높은 산을 가리킨다. 신약성서 고사본을 보관해 왔던 저 유명한 성 가타리나 수도원이 바로 이 산에 설립되어 있다. 기원후 4세기부터 사람들은 이 곳을 시나이산으로 믿어왔다.

이와는 달리 아라비아 북서쪽에 시나이산의 위치를 선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시나이산의 성서적 묘사를 보면 화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출애 19, 18에 의하면 이 산이 불과 연기로 뒤덮이고 산 전체가 지진으로 뒤흔들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라비아 북서쪽 미디안 땅에 화산이 있고 이것은 불타는 가시덤불 이야기(출애 3, 1)로도 입증된다.

마지막으로 신명 33, 2와 판관 5, 4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나이산을 예돔 땅에 위치시키는 학자들도 있다. 이 위치

선정은 열왕기 상권 19, 1-8에 기록된 엘리야의 여행기와도 부합된다.

이 세가지 중 어느 것을 진짜 시나이산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아마도 사막을 횡단했던 무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고,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땅에 진입할 때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후대에 이 서로 다른 전통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시나이산의 모습이 창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시나이산의 위치가 어떻든 사막생활의 정적은 결국 야훼께서 당신 백성에게 생명의 법을 주시므로써 못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이 타민족의 침입과 자체내의 부패로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예언자들이 "생명의 법"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촉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법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참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道)로 보고 기쁨이 이 길을 걷고자 했다.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시편 199, 35).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 당신 계명 내가 사랑하옵기에 쌍수 들어 받고 당신 뜻을 언제나 나는 명상합니다"(시편 119, 47-48).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산부인과전문의를 황수경(크리스티나) 이승렬(엘리아)

판통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해성중고 동창회

일시: 1988. 10. 9. 오전10시
장소: 모교 율호관
인건: 회원명부작성 및 채움대회
회비: 5,000원
기타: 중식제공
전주해성중고 동창회장 홍순천

한복·약혼·무용·파티·결혼

고려주단

전 광원 (마르코)
김삼례 (소피아)
전주시 교사동(신혼예식장 골목)
☎ 6-1902

# 교 구 소 식

1. 교구 교육위원회 : 17일(월) 오후7시 장소-가톨릭센터 휴게실
  2. 대학생 연합회 체육대회 : 3일(월) 오전9시 장소-해성고 운동장
  3. 휘폴라레 수도자 모임 : 6일(목) 오후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4. 꾸르실료 교육 봉사자 연수회 : 8일(토)~9일(일) 장소-천호 피정의 집 ①수강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 추천받아 10월5일까지 접수바람 ②연수회비 1인당 1천원 ③8일 오후3시 가톨릭센터 접수 천호출발
  5. 성모 푸른군대 피정 : 7일(목) 10시-오후4시 덕진천주교회 강사-이순성신부님 준비물-미사도구, 도시락 지참
  6. 베소라성서(고급반) 안내 : 오전반 구약(모세오경) 매주화요일 오전10시-12시 오후반 신약 매주 화요일 오후7시30분-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비 매주1,500원 강사-김정원신부
  7.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4일 오후7:30 장소-가톨릭센터
  8. 전화번호 변경 : 남원천주교회 사제관33-1004 사무실2-2072  
오룡동 천주교회 사제관63-7211 사무실63-7212 수녀원63-7213
- ※ 축! 영명 성 아씨의 프란치스코(4일) : 김기곤신부님 축하합니다.  
 ※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성소피정 : 일시-16일(일) 오전10시-오후5시 장소-부산시 남구 대연3동(성프란치스코의집) 대상-미혼여성으로 수도생활에 관심이 있으신분 주제-부르심 회비1,000원 연락처(051)622-1652  
 ※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 15일(오후2시)-16일(오후3시) 장소-광주직할시 북구 임동 67번지(062)54-0041~3 내용-기도·면담 대상-성소에 관심있는 젊은이들  
 ※ 경로 수녀회 성소자 피정 : 22일 오후4시-23일 오후5시 연락처-청주56-6697

## 요십이 (791) 김병오



## 장간

###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 ③-군산 오룡동 성당편

「본당이 따로 있나……」

군중 신부 때의 일이다. 서울에 회합이 있어 본당을 비워야 하는 데, 마땅히 모셔올 신부님이 계시지 않아 고민하고 있음을 보고 한 교우가 "신부님 걱정하지 말고 다녀 오세요. 옆 미군 성당에 가서 미사 참례 할게요." 하는 것이 아닌가! 난 새삼 우리 천주교회가 갈림없는 하나의 교회임을 느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유일무이한 하나이요, 공변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룩한 교회임을 긍지요,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작은 본당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웅다웅하는 역할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하나인 교회에 긍지를 느낀다면 우선 먼저 각자 '자기 본당'이라는 벽을 헐어야겠다.

얼마전부터 군산 오룡동 성당 성모회에서는 전 신자를 대상으로 '완도 미역'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젊은 부인들의 모임인 "아가페회"에서는 전기 카펫 팔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는 자기 '회'나 자기 '본당'을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본당신부님을 중심으로 일차 단결된 사목회 임원들 역시 주일헌금 배가 운동을 벌여, 평소 55만원 정도의 헌금이 70만원 수준으로 쉼짝 뛰게 되었는데 이 또한 자기 본당에 쓰고자 함이 아니다. 이 모든 희생은 성전 신축에 열성을 다하는 이웃 본당인 '나운동 본당'의 성전 신축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네 본당 내 본당이 어디 따로 있겠는가! 본당이 다르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무관심을 합리화 시키지 말자.

전북 의료조합 지정  
**마기환안과의원**  
 부설: 새한콘택스레즈  
 원장 전문의 마 기 환  
 한 남희(비리사다)  
 오거리 국민은행 중앙지점 앞 2층  
 ☎ 85-2203

**중앙회장품백화점**  
 (종합선물의 집)  
 20~40% 할인  
 \* 결혼세트 특별우대판매  
 임 영 자 (미발레나)  
 중앙성당 정무원  
 ☎ 4-0841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어  
**최 윤 경 (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위 상 양 (프란치스코) · 김 병 희 (글리리)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전주시 교사동 2가 1-13 완주농협 · 우신호텔 앞

한방보약 · 예방의약  
 용(元草) 九蒸芩 인삼  
**영 세 당 약 국**  
 약 사 정 우 진 (이시약)  
 MPH  
 전주시 완산국교 사거리 ☎ 6-6422, 6-5326

#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김진룡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의옥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1. 오늘은 군인주일: 군인들의 사목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2차헌금 실시)
2. 특별교리반(3개월코스) 예비자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3. 중·고학생 성지순례: 오늘 배론
4. 혼배재신식: 3일(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 모임  
사목회-오늘 공식미사후 재속형제회-오늘 공식미사후(중식제공)  
자모회-오늘 3시미사후 다미안회-4일(화) 오후  
성심부녀회-7일(금) 어머니미사후 꼬미씨음-다음주일(9일) 오후2시
6. 한국성체대회 참가 희망자 모집: 16일, 대전(사무실 문의)  
□지난주봉헌금: 1,051,780원 □교무금: 853,500원

##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원영  
수녀원 76-0961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입니다.

1. 오늘은 군인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2.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차주: 친교주간: 반장님회의-차주 공식미사후
4. 어머니회 피정: 일시-7일 장소-천호피정의 집 강사-김진소 신부님 회비5,000원
5. 가정방문: 수(13반) 목(14반) 금(15반, 16반)
6. 금주전례: 해설-나인구 봉헌-이원구부부  
복사-장수택 임병규 기도-62반, 63반, 64반
7. 차주전례: 해설-신동철 봉헌-이규세부부  
복사-장우진 양정용 기도-65반, 66반, 1반
8. 미사안내: 창조주의 모후Pr 차주-증거자의 모후Pr  
□지난주봉헌금: 새벽89,350원(95명) 공식206,820원(228명) 저녁163,330원(198명) 합계496,060원 □교무금: 1,119,500원

##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철  
수·유 72-1222

1. 오늘은 군인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습니다.
2. 사목회: 공식미사후 요셉회-공식미사후
3. 중·고학생회 체육대회: 학생미사후 덕진 중학교 운동장
4. 사목회 단합대회: 3일(월) (진복회, 성화회 함께 갑니다)
5. 가정의학: 초청 강연(서울의원 이상재 원장님) 4일(화) 오후2시  
관심있는 교우 여러분의 참석 바랍니다
6. 성심부녀회: 5일(수) 오전10시
7. 푸른군대 1일피정: 6일(목) 오전10시부터
8. 병자봉성세: 7일(금)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9. 10월 성시간: 7일(금) 오후7시30분
10. 빈첸시오회 불우이웃 돕기 일일차집: 9일 보라방커피숍 교우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참여합니다.  
티켓-1매 500원)
11. 금주분당침소: 사랑하을 모친Pr-8일 오후1:30  
□지난주봉헌금: 624,810원 □교무금: 337,000원

##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1. 축! 영세식: 오늘 공식미사중에 있음.
2. 전신자 성지순례: 9일, 천호성지, 회비1,000원 사무실에 접수
3. 성시간: 7일 오후9시
4. 예비자교리: 일반-목 오후8시 중고생-토 오후6시 (부활 예비자반 첫 교리-6일 오후8시)
5. 오늘은 군인주일 2차헌금 있음
6. 구역미사·모임: 4일(일) 동산7, 6일나눔찬치-성덕 7일모임-동산5
7.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애령회, 4일11시-빈첸시오회 제대회-7일 오후8시
8. 수녀님방문: 5일-빈첸시오, 7일-평화의 모후
9. 침소: 금주-셋벌의 모후 차주-바다의 별
10. 금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강용준 ②신문자  
차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안기철 ②김진례  
□지난주봉헌금: 298,840원 □교무금: 240,000원  
□수요헌금: 23,700원

## \*서신동

사제관 14-2214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사목회장 박병열

- ※ 벽돌헌금 함: 우리들의 정성어린 벽돌 한장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 ※ 짓갈류 판매: 성전 신축을 위한 각종 짓갈류를 판매 합니다.
1.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후 ②상임위원회-4일(화) 저녁미사후 ③구역장회-토 오전10시 ④제대회-토 오전10시 ⑤부녀회-토 오전11시
  2. 차주모임: 성조회 공식미사후
  3. 다음주일은 페루 선교사: 선교사들을 위한 2차헌금 실시  
금주분당침소 안내: 매곡의 모후 차주-증거자의 모후  
금주미사안내: 증거자의 모후, 청소년 차주-파티마의 모후, 사회복지  
금주미사전례: 해설-이경자 독서①선종현 ②임명희  
차주미사전례: 해설-이경자 독서①김형식 ②이정림  
□지난주봉헌금: 248,910원 □교무금: 430,500원

## \*송천동

사제관 74-1004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사목회장 소병울  
수녀원 4-1142

1. 한국성체대회: 일시-10월16일 장소-대전공설운동장 참가비-5,000원(중식제공) 인원-선착순 23명
2. 모임: 사목회-공식미사후 성심부녀회-7일 오전11시 까리따스회-4일 오후2시 안나회-9일
3. 분당공동체 묵상회: 10월(월)-15일(토)까지 매일저녁 7시30분
4. 구역장, 반장모임: 5일 오후2시
5. 부활영세반 예비자모집: 9일부터시작 신부님반-금요일 저녁8시(일반) 수녀님반-일요일 오전9시(학생, 성인)
6. 청년성가대 연습: 매주수요일 오후7:30
7. 짓갈판매: 서신동 부녀회 협조바랍니다.
8. 금주분당침소: 송천11구역 8일 오전11시
9. 금주전례: 해설-박세영 독서·기도-전례분과주관  
차주전례: 해설-김혜숙 독서·기도-재정분과주관  
□지난주봉헌금: 269,700원 □교무금: 496,000원

##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1. 오늘: 군인주일(2차헌금), 성모회, 야외사목회 예비자 5월반 가정방문 ※ 오늘 사목회에는 분과위원장님도 전원참석하세요.
2. 금요일: 매 금요일, 단식제-매월4제 금요일. ※ 10월부터 실시함
3. 성시간: 6일(오후7시) 4. 구역모임: 4,5,6,7일 ※ 술머리 참조
5. 초·중·고 고백성사: 8일(오후 4시30분)
6. 다음주: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실시함. 울뜨레아(공식미사후), 예비자 5월반 가정방문
7. 축/결혼 신랑-최재각(프란치스코) } 다음주 12시  
신부-김경숙(아가다)
8. 금주분당침소: 화-순교자의 모후 토-상야보람
9. 미사안내: 평화의 모후 10. 미사해설: 접미봉
11. 금주전례: 독서·기도-송국용, 이명순 봉헌·기도-서창원, 한정희  
차주전례: 독서·기도-이규철, 고혜자 봉헌·기도-김용석, 오영자  
□교무금: 512,000원

##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1. 축: 견진
2. 견진성사: 10월2일 오전10시30분(농업고등학교 강당)
3. 구역장모임: 6일 어머니미사후
4. 울뜨레아: 4일 화요일 저녁미사후
5. 성당침소: 10월 결백하신 모후, 매주 월요일 오전
6. 여름시간 해제: 9일부터(미사시간 변경 없음)
7. 성당 건의자 신청받습니다.  
□지난주봉헌금: 506,710원  
□성전신축을 위한 2차헌금: 216,220원